# 崇實大學校의 建學理念과 具顯方向

金 致 善
(崇實大 總長)

## 1. 略史 및 建學理念

### 1) 沿 革

崇實大學校는 1877년 10월 10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W.M. Baird가 관서 지방의 개화와 기독교 운동의 중심지인 平壤에 崇實學堂을 세운 데에서 起原한다.

배위량(Baird)의 사랑방에서 시작한 崇實學堂은 4년제의 中學課程으로 발전하였고, 1906년에는 宣敎本部로부터 4년제 대학부를 설치하도록 승인되어 1908년에 처음 2명의 대학부의 첫 卒業生을 배출하였다.

韓日合邦 뒤 朝鮮敎育領을 통해서 일본 총독부로부터 4년제 大學으로 인가받은 바 있으나 1925년 民族大學으로 발전하고 있는 崇實大學을 崇實專門으로 격하시켰다.

일제의 탄압 아래에서도 문예 활동 및 체육을 통해서 억압된 민족에 빛과 소망을 샘 솟게 하였고, 새로운 학문에 열중하면서도 基督敎傳道 활동이나 민족 운동을 일으켜 獨立國家 건설의 얼을 심는 데 열중하였다. 그러므로 일제의 통치하에서도 基督精神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던 崇實大學은 개화·반봉건·자주·항일에 앞장섰던 것이었다.

105인 사건, 국민회 사건, 3·1 운동, 광주 학생 독립 운동을 통해서 빛나는 民族運動에 앞장을 서다가 드디어 1938년에는 神社參拜 拒否로 교문을 닫는 비운을 감수해야 했었다.

폐교가 될 때까지 崇實은 社會와 敎會에 民族의 지도자로 활약할 443명의 人材를 배출하여 오늘의 民主主義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해 왔다.

1945년 解放이 되면서 崇實을 부활시키려는 꿈은 평양에서 실현이 되지 못하고 6·25동란을 겪은 뒤인 1954년 폐교된 지 16년 만에 서울 永樂敎會 별관에서 再建되었다. 그러다가 1957년에야 현재의 캠퍼스가 위치한 上道洞에 자리를 잡고 工科大學을 신설하여 현재의 綜合大學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잡았다.

그 뒤 建立理念이 같고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大田에 세워 운영하던 大田大學(현 韓南大學)과 崇實大學은 두 학원을 기독교 연합 교육 재단으로 통합, 두 캠퍼스를 가진 綜合大學인 崇田大學校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통합 후 10년 동안 문교부의 지방 대학 육성 정책에 의해 원래 규모가 작았던 大田 캠퍼스가 오히려 서울 캠퍼스보다 더 큰 규모로 발전함에 따라, 崇田大學校는 통합한 지 10년 만에 다시 한남대학이란 명칭으로 새로운 재단을 구성하여 독립된 두 개의 대학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서울 캠퍼스는 계속 기독교 연합 교육 재단에서 운영함으로써 崇田의 전통을 이어

오다가, 86년 11월 4일 文敎部로부터 校名을 崇實大學校로 개명할 것을 허가받게 되어 '87 학년도 신입생은 崇實大學校에 입학하게 되었다.

### 2) 建學理念

최초의 創立精神은 이 땅에 基督敎의 福音을 전파할 수 있는 참된 교육자와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북장로교 선교부 교육 정책을 보면 '崇實學校의 기본 理念은 유용한 지식을 다양하게 교수하여 실생활의 제 분야에서 책임 있는 일꾼을 만드는 것'으로 그 目的이 뚜렷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建學理念은 자유의 구현으로서 나타난다. 이 자유의 구현이야말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음침한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고 수천 년간 이어온 악습에서 벗어나게 하며 가난과 질병, 무지와 우상숭배에서 풀려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하고 새 시대를 건전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육 기관으로 설립된 崇實은 당시의 어지러운 사회에서 참되게 사는 길, 진리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그 진리를 찾는 데에는 基督敎의 길도 인정했지만, 한편으로는 科學館을 열어 과학을 통해서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 현대 학문의 특징인 실증의 능력과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수학을 가능케 하는 데 앞장서왔다.

崇實의 또 하나의 귀중한 정신은 봉사 정신이라 하겠다. 학문적으로 배우는 데에만 뜻을 두지 않고 일하는 가운데 땀의 가치와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워 주었다. 땀의 가치와 신성함을 깨달아 열심히 일한다 함은 개인 자신의 일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로 이어지는 데서 그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1900년대부터 계승되어 이어졌다. 그 첫째는 崇實學生傳道會가 구성되어 關西地方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산동성에서까지 활약했고 농촌 계몽 또한 활발하였다. 崇實人들은 방학 동안 모두 농촌으로 나가 봉사했으며, 農科는 비록 6회의 卒業生밖에 배출하지 못했으나 그 당시 낙후된 영농을 개선하기 위해 졸업생들은 모두 농촌에 돌아가 일함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였다.

## 2. 社會事業學科

### 1) 發展過程

大田大學과 합치는 작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崇實은 工科大學, 法經大學, 文理科大學으로 편제를 갖추고 한국에서는 한 개뿐인 기독교 박물관을 부설하여 綜合大學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69년 10월에 기독교 교육학과를 폐지하면서 자체 인원 조정으로 文理科大學에 社會事業科를 신설하게 되었다.

1970년에 전자계산학과와 함께 처음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 社會事業學科의 설치는 崇實大學이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문에 부응코자 하는 노력의 용단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70년에 처음 社會事業學科에 입학한 학생들은 아직 이 사회에 사회사업이란 학문이 보편화된 개념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社會事業學을 전공한 교수 요원을 확보하기가 힘든 때였기 때문에 선진 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미국에서 社會事業學을 大學과 大學院에서 수학하고 있으며 당시 귀국할 의사가 있던 韓美財團의 在美 學者를 그 당시 서울大 교수로 본교에 출강하여 社會事業概論을 맡아 주신 교수가 추천하여 우선 한 명의 교수를 확보하였다. 그 사람이 '71년에 귀국했을 때 조교수로 채용하고 學科長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가운데 학교 자체는 大田大學과 합치면서 崇實大學이 崇田大學校로 승격되었고, '73년에는 서울大 法學科를 나오고 美國에서 行政學으로 大學院에서 수학하고 社會福祉政策으로 論文을 쓴 행정학 박사를 초빙하여 사회 사업을 전공한 교수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교수팀이 구성되었다. 두 명의 교수로 학과를 끌어 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서울에 있는 기존 社會事業學科(서울대, 이화여대 및 중앙대)교수들의 아낌 없는 지원으로 학과는 활발히 발전되어 나

갔다.

두 사람의 교수로 학과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교수를 찾는 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인원수는 부족했지만 一人二役을 하면서 인내하며 교수 활동에 힘썼다. 그러던 가운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음을 실감하는 계기가 생겼다. 즉 서울大 치과대학에서 醫學을 마치고 장로교신학대에서 神學을 전공하여 牧師가 되었으며 美國으로 유학하여 大學院에서 宗敎相談을 연구하였고 또 社會事業 碩士 및 博士學位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광주에서 Boy's Town을 운영하고 있던 분이 '79년 社會事業學科 교수진에 가담하여 臨床分野를 맡게 됐던 것이다.

'30년대에 出生하고 뜻이 합쳐진 세 교수가 각기 독특한 배경과 활동 영역을 맡아 학과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조화된 교육을 펴나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社會活動 영역도 넓어지게 되었다. 그러다 '82년도 가을에는 연세大에서 神學과 社會學을 전공하고 카나다로 유학하여 社會事業學을 學部와 大學院에서 전공한 '40년대 출생 젊은 교수가 초빙되어 교수진에 합류하면서 네 명의 교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4명의 교수가 확보된 가운데 학부 학생들은 초창기에 20명으로 시작되어 25명, 30명, 35명 그리고 40명으로 점차 증대되어 오늘에 와서는 50명의 入學定員을 갖게 되었으며, 30명의 大學院 碩士課程과 7명의 博士課程 학생수를 갖는 학과로 성장한 것이다.

### 2) 社會事業과 奉仕活動

社會事業學科는 應用學問으로 純粹學問에 기반을 두고 社會問題 해결과 사회 발전에 그 지식을 응용하는 데 의의를 둔다.

즉 社會學, 心理學, 文化人類學과 그 밖의 교양적 학문을 기초로 하면서 社會事業 方法論을 個別, 集團, 地域社會組織論 등 微視的으로 분류하고 社會調査, 社會福祉 行政 및 政策과 計劃을 巨視的으로 분류하여 복지 사회 구현에 직접적인 주역이 되기 위한 지식의 골격을 구성한다. 여기에 그 사회가 문제로 삼는 각종 社會福祉 事業의 분야(福祉法의 내용)를 학과목으로 배우면서 現場實習을 중요시하는 實用的 교과내용으로 구성된 학문이다.

그러므로 社會福祉 法人으로 구성된 각종 社會事業機關에 나가서 3학년과 4학년 때에 2학기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개인, 집단,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일을 학문적 지식과 연계시켜 실습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밖에 실습 학과목으로서의 활동 이외에 각종 분야에서 자원 봉사 활동에 학생 신분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1) 農村奉仕活動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巨視的 經濟計劃은 공업화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社會經濟發展에 불균형을 가져오며 특히 農村經濟에 같은 수준의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농촌 경제의 불균형 성장을 해소하고 농촌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 및 대학의 연구팀과 봉사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여기에 崇田大學校에서는 연합 봉사단을 조직하여 학도호국단이 주축이 되어 농촌 봉사 활동을 펴왔으나 社會事業學科에서는 농촌 봉사 활동에 현장 실습 교육으로 학도호국단과 같이 활동해 왔었다. 그 결과 사회사업학과는 농촌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교수가 함께 참여하여 농촌 개발에 기여함과 동시에 연구 및 학습을 위한 계기를 갖게 되었다.

특히 1975년부터 실시한 충청남도 천원군 일대에서 광덕면을 중심으로 하여 4년간 벌인 봉사 활동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우선 그 지역의 欲求調査를 大學院生과 학부생들이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그 지역의 개발 사업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도호국단에 지원되는 자금 이외에 美國 죠지아주에 본부를 둔 미국 남장로교 총회 선교부(U.B.)로부터 농촌 빈곤 퇴치 사업과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신청하여 여기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8회에 걸친 이 지역에서의 봉사활동은 특수 작물 재배, 축산 사업 시범, 마을 가로등 설치, 마을의 수도 시설, 새마을 회관 건립, 방역 및 가족 계획 사업, 가전 제품 수리

등 일반 봉사 활동 이외의 다양한 특수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위에 열거한 사업은 주위에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했으며 주민 스스로의 회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 나갔다. 주민이나 학생들은 낙후된 농촌 생활도 개선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이 사업의 효율성은 그 당시의 문교부 장관의 방문으로도 확인되었던 것이다.

(2) 地域中小企業 支援活動

社會事業學科 교수들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中小企業의 經營 및 技術支援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가깝게는 상도동과 멀리는 영등포 지역(그 당시 행정 구역은 영등포구에 속했었다)에 위치한 중소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美國 南部의 명문 공과대학과 공동 프로젝트로 1974년부터 경영학과와 공과대학 교수들의 참여와 지원을 받아 3년 동안 활동을 벌였다. 이 프로젝트는 영세 중소 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세계적 학술 모임에 발표되고 연구 보고서가 출간되어 개발도상국에게 産學協同의 모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미국의 '아시아 기독교 敎育을 위한 연합 재단'의 지원을 받아 中小企業育成研修過程을 실시하여 지역의 중소 기업가들의 創業精神과 企業의 効率的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86년 11월까지 제10차 연수 과정이 실시되어 천여 명 이상의 중소 기업인들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오랫동안 중소 기업에 쏟은 기술 및 운영 지도와 연수 과정을 통한 노력은, 중소 기업이 영세민 및 도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 증대 및 창업 정신을 높여 줌으로써 경제 발전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실업으로 인한 빈곤자를 줄일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하여 연구하고 노력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특수 대학원으로 '중소기업 대학원'이 '83년에 숭전대학교에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敎會指導者를 위한 社會事業敎育

발전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 빈곤은 점차 없어지고 있지만 상대적 빈곤의 度가 날로 높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각종 福祉法을 제정하였고, 이를 실행하려는 뜻은 있으나 국가의 자원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基督敎와 관련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본교 사회사업학과에서는 국민의 福祉欲求를 충족시키는 일에 교회가 참여할 단계이며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社會事業家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그런 단계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교회 지도자가 사회 사업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타진되었다.

1981년 독일의 게신교 개발도상국 원조본부(E.Z.E.)에서는 이 뜻을 인정하여 3년간의 서울 지역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회 사업 연수를 시키는 일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사회사업학과에서는 곧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현재까지 제11기를 통하여 서울 지구 신·구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주었다. 목표 인원수는 800명이었지만 이미 900명 이상이 연수를 받았고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은 계속될 것이다.

끝으로 숭실의 기독교적 박에 정신과 학문의 기반이 잘 짜여진 社會事業學科 교수팀의 實踐的 노력은 교육 과정에서나 대외 활동 면에서 돋보이게 되었다.

학부에서의 발전과 더불어 U.B.의 지원을 받아 社會事業分野에 오랫동안 근무한 중진 간부들에게 碩士課程을 이수케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 결과 博士學位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社會事業을 통한 福祉社會 建設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한 社會事業學科의 발전은 崇實의 建學理念이 바탕이 되어 학교 정책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結實로 보아야 할 것이다. ※